

#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에 관한 건의안

의안 번호	297
----------	-----

발의년월일 : 2008년 1월 16일

발 의 자 : 김학원의원 외 11인

## 1. 주 문

- 대전광역시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평균인구수가 광역시중에서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타 광역시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대전광역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증설되도록 정치적 배려를 강력히 건의 함.

## 2. 제안이유

- 가. 오는 4월 9일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분구 및 통·폐합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을 증원하기 위한 지역여론이 증가하고 있음
- 나. 그러나 대전광역시는 제15대 국회의원수가 17대에 와서 감소하고 광주·울산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영·호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음.
- 다. 따라서, 전국 243개 선거구의 평균인구는 202,549명인데 반해 대전은 245,881명으로 광역시중 제일 많으며, 현 선거구별 인구수를 비교해도 대전광역시에서 인구수가 가장 적은 대덕구가 214,004명으로 이는 광주광역시 동구의 111,065명의 두 배가 되고, 분구가 된 광주 서구·북구와 울산 남구의 인구가 30~40만 규모인데 반해 대전 서구는 50만 명이 넘어 표의 등가성 훼손 등 불합리한 구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보다 인구가 61,494명이 적은 광주광역시는 선거구가 7개 이고, 378,245명이 적은 울산광역시가 6개임은 우리시가 상대적으로 정치적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이런 불합리한 사향의 개선을 위해 2개의 선거구가 증설될 수 있도록 각계에 건의하고자 함.

#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에 관한 건의안

오는 4월 9일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전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상대적으로 적어 정치적 홀대론 까지 부각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회의원 증원을 위한 시민여론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은 『헌법』 제41조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21조 1항에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에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확정하되,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라고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부칙<제7189호,2004.3.12> 제7조에는 부산시 해운대구 일부, 부산시 북구 일부, 인천시 서구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지역구에 속하게 하였으며,

선거구별 평균 인구수 기준은 헌법재판소에서 2001년 10월 25일 선거구별 인구 상하한선의 편차를 3:1로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선거구 획정은 평등권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판시하여 17대 총선당시 상하한선을 303,824명부터 101,273명으로 적용하여 선거구를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7대 총선당시의 선거구 획정내역은 광주광역시나 울산광역시와 비교해볼 때, 다음과 같이 형평성에 위배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2007년 10월 31일 현재 인구 기준 선거구별 평균인구 대비를 보면 전국 243개 선거구의 평균인구는 202,549명인데 반해 대전은 245,881명이고, 부산 199,463명, 대구 207,796명, 인천 221,489명, 광주 201,915명, 울산 183,022명으로 대전광역시는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보다 43,332명이 더 많고 광역시의 선거구별 평균 인구수는 최저 24,392명에서 최고 62,859명이 월등하게 많음을 볼 때, 대전광역시는 8개의 선거구가 되어야 하나 6개라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선거구별 인구수를 비교해 볼 때, 대전광역시에서 인구수가 가장 적은 대덕구는 214,004명인데 반해 광주광역시 동구는 111,065명, 울산광역시 북구는 154,413명으로 이는,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보다 102,939명에서 59,591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수가 광주광역시 보다 적고 울산광역시와 같다는 이해 못할 선거구 획정수를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셋째, 광역시별 최소 지역구와 최대 지역구간 인구편차를 비교해 볼 때 광주광역시 205,660명, 울산광역시는 81,614명인데 반해 대전광역시는 51,964명으로 상대적인 불이익과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분구가 된 광주광역시 서구는 308,975명, 광주광역시 북구는 466,617명, 울산광역시 남구는 345,418명 규모인데 반해 대전광역시 서구는 501,800명을 넘고 있어 표의 등가성이 퇴색되는 등 기형적인 선거구수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제17대 총선시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내역에 의거 대전광역시 보다 인구가 61,494명이 적은 광주광역시는 선거구수가 1개 많고, 378,245명이 적은 울산광역시는 선거구 수가 같다는 비합리적이고 역차별적인 사항의 해소를 위해,

선거구수를 현행 6개에서 8개로 2개의 선거구를 현실에 맞게 증설하여 주민의 대표성 제고와 시민의 권익과 위상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150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 합니다.

2008.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선거구 중설에 관한 건의안 발의

## 찬 성 의 원 서 명

의 원 명	서 명	비 고
김 영 권	김영권	
박 명 구	박명구	
김 최 훈	김최훈	
전 이 남	전이남	
박 회 리	박회리	
양 승 근	양승근	
최 재 우	최재우	
이 정 훈	이정훈	
최 형 제	최형제	
김 인 주	김인주	
조 신 해	조신해	
오 명 세	오명세	

# 수 신 처

1. 대통령
2.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3. 행정자치부장관
4. 청와대 정책실장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6. 국회의장
7. 국회정치관계특별위원회위원장
8. 대통합민주신당 대표
9. 한나라당 대표
10. 민주노동당 대표
11. 민주당 대표
12. 창조한국당 대표
13. 국민중심당 대표